

서울여자대학교 현대미술전공 전시 계획서

✓fade out: ( ) 구간의 맺음

장면 전환의 효과를 쓸 때 사용하는 기법으로, 이야기의 끝부분이나 장면전환에 많이 사용한다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해서 () 괄호를 주어 모두가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한다.

✓Evanescence : 사라져가는, 순간의, 덧없는, 속절없는(스페인어)

1. 취지: -예술에 대한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의미 없는 구분을 벗어나고 작품을 만드는 데에 있어  
즐거움을 느끼게 하기 -빠른 것만이 무조건적인 장점이 되는 현대사회에서 그로 인해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고찰

'사라진다'라는 말이 가진 의미는 다시 만날 수도 볼 수도 없을 것만 같은 느낌을 준다. 사람도, 동  
물도, 식물도, 심지어 우리가 만든 기계조차도 영원한 것은 없기에 우리는 이를 우리 나름의 방식으  
로 수용하는 방법을 전시하고자 한다.

4차 산업으로 인해 사회의 균형이 비인간화되어 가는 현재, 우리의 위치에 관하여 생각해보았다. 그  
리고 우리의 기억(memory)에 포커스를 맞추었다. 사람, 장소 혹은 사물 등의 형태적 본질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 마련이다. 지금은 사라져 가고 다양한 이미지들이 여러 형태의 레이어로 쌓여가면서  
멀어져 가는 본질적 실체를, 우리는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지나간 것들의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나간 곳의 발자취를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  
근할 수 있다. 인간의 학습 능력은 무한한 상상력을 만들어내기에 아주 적절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변하고 사라져 가는 실체의 본질을, 이 전시를 통해 잠시나마 기억하고 멈추어 우  
리의 방향을 재탐색해보았으면 좋겠다.

위 주제에 대한 작품과 체험을 통해 많은 이들과 함께 공감과 회상을 떠올릴 수 있게 하며, 우리가  
기억하는 소중한 과거의 시간, 공간을 다같이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전시가 되고자 한다. 예는 과  
거 우리가 살던 장소가 개발을 위해 사라지는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그에 따른 감정의 사  
라짐과 변화도 추가하면 작품의 재미를 상승시킬 것이다. 사라짐은 거대하게 혹은 사소하게라도 느  
낀 이들이 존재할 것이라 생각라며 그에 따른 공감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2) 일시: 2019년 7월

(3) 장소: 플랫폼창동61 2층 레드박스 및 갤러리510 (창동역 1번 출구)

(4) Part 1: 사라져가는, 순간의-사라졌으나 존재한 것만으로 우리에게 희망과 즐거움 등 긍정적인  
감정을 주는 것들 Part 2: 덧없는, 속절없는-존재했고 사라졌음을 인지했기에 슬프거나 안타까운  
부정적인 감정을 주는 것들

(\*참여자 수가 많아서 파트별로 나누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작품에 따라 선정해서 2주  
간은 파트1, 남은 기간 동안은 파트2)

(5) 이벤트 예시: 거울 앞에 방명록 혹은 작은 쪽지들, 전시 그림이 프린팅된 엽서 등등을 테이블에 두고 어떤 어른이 되고 싶었는지 아니면 이 전시를 보고 생각난 나에게서 사라진 것들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관람객들이 각자 경험한 '사라짐'을 카드같은 종이에 글자나 그림으로 표현하여 벽 면 가득히 붙여 서로의 사라짐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좋겠다.